

소방수의 아내



김 속 자
(전남 광주시 신안동 481-20)

앵—애—ㅇ.

오늘 저녁도 어느곳에선가 또 불이났나 보다. 몇 시인가? 불을 켜고 시계를 보니 시침과 분침은 윗쪽으로 한곳에 겹쳐있다.

자정인 것이다. 그녀는 지금쯤 불이 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아, 무사했으면…….

난 이럴땐 언제나 우리집 옥상에 올라 불빛으로 물든 불난 곳을 향해 내마음은 달려 그이 곁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긴 호수를 잡고 힘찬 물줄기를 내뿜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방화모를 깊이 눌러 쓰고 화재 속으로 뛰어들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어린이를 구하고 있을 것인지 모른다.

깜한 밤하늘의 별들은 새록새록 빛나고, 저 먼 검은 건물 뒷편 하늘엔 붉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환히 밝아 있다. 아마 그곳에 불이났나 보다.

찬 바람이 생 불어왔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은 불을 더욱 가까이 대하고 불을 가까이 대하면 불이 난 일이 많은 것이다. 소방수인 내 남편은 오늘날처럼 불이 나는 날이면 동료들과 함께 불난곳으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 긴 호수를잡고 불을 끄는 작업 뿐만 아니라 모험을 걸때가 많다.

제일 먼저 집안 어디에선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중요한 물건을 꺼내기도 하고,

불이 옆집으로 건너뛰지 않도록 방화벽을 치기도 한다.

그이와 결혼한 지 2~3년이 지나지만 그녀는 내게 불난 곳의 소방작업에 대해선 어떤 얘기도 들려주지 않고, 불이난 원인만 내게 들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난 도대체 그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궁금 하던차, 마침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마을에서 불이난 일이 있어 나는 뛰어가 멀찍히 서서 그이의 소방작업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이는 마치 신들린 사람 처럼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작업을 지휘하고, 또 앞장서는 것이었다. 길게 늘려쓴 방화모 두텁게 입은 방화복, 그리고 역세게 물이 쏟아지는 호수를 불이난 곳으로 깊숙히 끌고 들어가고 빨강계 타고 있는 화염속으로 헤집고 들어갈때는 내 마음이 온통 불더미 속이었다.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던 하찮은 곳에 불난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설마」로 뽕겨치고 잊고 산다. 그것이 아무런 일도 없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그 설마중 반드시 위험은 옆에 있어서 일이 터지고야 만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야말로 잣머미로 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

남편은 지금 제일 먼저 불난 집에 뛰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을 것이다.

「가족들은 다 나왔어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할 수록 어리석은 일이 많다. 자기집 물건을 챙겨 나오면서도 어린아이들은 깜박 잊는 수가 많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에 화를 입는 수가 많다.

남편은 아직 사람이 집안에 있다면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불구덩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아주 침착하게. 그러나 가장 화염이 약한 곳으로 익숙하게 뛰어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어린 간난일때 나를 안고 나오는 한 소방관 아저씨의 침착하고 익숙한 행동처럼

내 오른 발, 잔등엔 어린아이 손바닥 크기의 큰 흉터가 보기 싫게 그려있다. 난 자라오면서 남과 같지 않는 내 발등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흉터의 원인을 알고 싶었으나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

겨울이면 양말을 신고 신발을 끼워 보이지 않지만, 집안에 있을때나 양말이 필요없는 여름엔 난처하기 그지없다.

제일 난처한 것은 학교에서의 용의 검사시 신발을 내놓으라 할때다.

국민학교 고학년부터 이 보기 흉한 흉터를 의식하고 내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오른 마음의 상처가 깊게 쌓여갔다.

난 부모님께 이 흉터의 사실을 물어보았으나 어렸을 때 잘못해서 그랬다고만 대답할 뿐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 그러나 그늘진 사연을 알게 했을때가 있었으니.....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우리 가족이 셋방살이를 면하고 조그마한 ‘우리집’을 갖게 될때 이사를 다 마치고 아빠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이 집은 우리가족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집이다. 때문에 이 집을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조심할것은 불, 불, 화재다. 불은 누구를 봐주거나 인정이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 소홀할때 우리를 시험해보는 것이 불이다. —

첫째도 불, 둘째도 불조심이다.

아빠는 따로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우리는 할아버지로부터 약간의 재산을 물려받아 집을 장만했다. 아마 우리가 손수 맘뉘려 이룩한 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사소한 정말로 어치구

니 없는 실수로 우리의 모든 것을 화재속으로 날려버리고 나까지 화를 당할 뻔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기인 나를 재워놓고 석유풍로에 빨랫감을 얹어 둔 채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바람이 휴지를 석유 풍로에 날려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집에 왔을때는 이미 불은 천정을 활고 있었으며 집을 빙 둘러 싸고 있었단다. 엄마는 정신이 나간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만 쓰러졌는데 소방수들에 의해 불난 방속에서 나를 구해냈단다.

—그때 발에 약간 화상을 입은것이 지금의 그 흉터지, 넌 소방수 아저씨 덕분에 살아났지만 우린 너를 구할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했는지—

그때서야 난 모든걸 알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이 화재 예방에 그렇게 철저했던 이유도 알게되었다.

난 그때부터 나를 구해준 소방수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불이 난곳을 볼 기회가 있으면 난 소방수들의 일사불란한 작업을 지켜보면서 ‘나를 구해준 사람도 저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한다.

난 내가 살았던 옛 마을로 가서 그때의 소방관 아저씨가 누구였는지 찾아보았으나 30여년전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자라면서 내 생명을 구해준 어느 소방수 아저씨의 생각을 내 의식속에 한걸 한걸 접어 두기 시작했다.

난 이따금 불더미 속에서 꿈틀거리며 죽어갔을지도 모른 내 어렸을 때의 망상을 생각해 내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보는 것이다. 사람이 두 번 산다고 했을때 그건 분명 첫번째의 삶보다 다른것이어야 했다.

인생이란 자기가 생각한대로 운명지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난 우연한 기회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치녀시절 산을 즐겨 찾는 난 단풍으로 물든 백양사 뒷산을 넘어 내장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였다. 점심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버너에 불을 붙여놓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단풍의 물결에 취해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있을때였다.

「아가씨, 밧티는 냄새가 나네요. 버너 불을 끌까요?」

웬 통명스런 남자의 목소리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남자는 저만치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난

무안해서 쳐다보지도 못했다.

「아가씨, 집안에서도 그렇게 정신을 한곳에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도 되는 것입니다.」

—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도 됩니다—난 그 말에 이상한 전율같은 것을 느꼈다. 이 남자도 불과 무슨 인연이 있구나.

난 그 남자와 함께 내가 준비한 점심을 들었고 등산길을 동행했다. 그는 내가 묻는 말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주었으며 아주 해박했다. 난 그에게서 그가 분명 화재를 막는 소방수같은 직업의 짐새를 알았으나 물을 수는 없었다. 난 그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한나절의 동행인 시간이었지만 오래전부터 깊이 사귀어온 사람처럼 느껴져 우리는 서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다.

우리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때, 그에게 내 인생을 바쳐 봉사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난 아가씨를, 말을 만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요」그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와 결혼한 것을 승낙하지 않았다. 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 생각하지 않았고 은혜를 잊지않는 어떤 사명감도 아니라고 내 자신에게 몇번이고 되뇌이곤 했다.

반대하던 부모님도, 선뜻 응하지 않던 그이도, 나의 진실 앞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고쳐 갖게 되었다.

우리는 결혼하여 단칸 방에 세들었을 때, 그이는 손수 쓴 포어를 부엌에 붙이고 불조심을 철저히 강조했다.

—앗차하는 방심속에 우리가정 빼앗긴다—

그이는 우리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건물 전체를 소방 검열을 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 깜짝놀랐다. 전기 배선의 불량에서부터 다락속의 자연 발화 물질까지. 한여름 슬라브 건물밑에 달구어진

다락방의 온도는 60°C를 넘는 수은주였다. 이 온도는 화재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란다.

우리는 병이 났을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것처럼 불이 난 뒤에야 불조심을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정을 영원히 지켜나가기 위해 <만약>을 대비해서 <화재보험>도가 입해 놓았다. 내가 어렸을때 우리집이 화재보험이라도 가입해 놓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집은 것처럼 불행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이는 불이나 진화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면 언제나 내게 화재의 원인을 말해 준다. 불이난 원인은 언제나 부주의 그것이었다. 사람이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담배꽂이가 커다란 화재를 불러오기도 하고, 규격품이 아닌 전선이 집을 태울수도 있으며, 열 기구를 잘못다뤄 당하는 수도 있었다. 그이는 사건이 있는뒤엔 언제나 원인별로 기록해 두고 막을 수 있었던 대책을 적어둔다.

어느날, 난 그에게 물었다. 「어디 화재학 박사논문이라도 제출하려고요?」

그이는 웃으며 「우리 소방수는 불을 진화하는 일보다 미리 예방하는데 그뜻이 있거든,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작성한 거야.」

그이는 자주 학교나, 어떤 모임에 나가 화재예방에 관한 강의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가 기록해둔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앵—. 환하게 밝아있던 하늘이 하얀 연기로 변하고 다시 어두운 밤의 그늘속으로 잠길때 불자동차는 경적을 울리면서 되돌아 온다. 그이도 무사히 돌아오겠지. 화마가 휩쓸고 간 그 집 사람들은 허탈과 절망속에서, 왜 사소한것을 설마로 넘겼는지 크게 후회하고 있겠지.

난 부엌으로 돌아가 연탄불을 다시 확인하고 내일 아침 그이가 돌아오면 그이를 따뜻이 맞이해 주어야지 “여보 수고하셨습니다” *

슬픔의 문



양 정 자
〈서울시 城北區 정릉4, 289-14〉

내일이면 맞선을 보는 날 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기실 들떠 있기는 그보다 훨씬 전 부터였다. 전에 몇 번 선을 볼때마다 내키지 않아 하다가 마지 못해 나가곤 했던 경우에 비하면 이번엔 확실히 다른 것이었다. 상대는 우리가 나가던 교회 권사님의 막내 아들로서 서울에서 공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어느 재벌 그룹의 회사에 다닌다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한참 후에 언니의 기억 속에는 하얀 목책이 둘러있고 문간의 장미가 핀던 이층집이 떠올랐고 그집에서 자라던 얼굴이 희고 단정하던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교회의 관사가 가까운 곳에 있던 권사님네 백은 예나 이제나 늘 찬송가와 웃음이 흘러 나오는 단란한 집이었고 그집이 막내로서 근중에 이름난 수재 소년이었다던 그 중학생은 당당히 언니 나이 또래의 선망이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중학을 마치고 고향을 떠난지 10년이 훨씬 지나 이제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을 옛날의 그 소년과 인연이 달아서 언니와 혼담이 오가기에 이르는 것이었다.

“정자야, 그렇게 잘 생기고 머리 좋은 남자가 정말

도회지에 애인이 없었을까.”

잠자리에 들면 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언니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혼자 지냈는지 모르지 않.”

내가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서 슬쩍 보면 언니의 얼굴은 금방 주홍빛이 되어 버렸다.

“나 같은 게 뭘…… “그러면서 돌아눕다가도 금방 다시, “선 보는 자리에선 잘 해낼 수 있을까?”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되묻기도 하는 것이었다.

“언니가 어째서? 미인이고, 마음뚫고, 언니를 데려가는 남잔 복덩어릴 가져 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맞선 날이 다가 올 수록 언니는 안절 부절을 못하였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방안에 틀어 박혀 있어서 궁금하여 문을 열어 보면 예외 없이 화장을 지우고 다시 하고 또다시 지우고 다시 서툰번쩍 고치고 하는 것이었다.

이럴 땐 “예쁘니?”하고 꼭 나를 바라 보는 것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어둑신한 방마저 환할 지경으로, 나는 속으로 탄성을 지르곤 하였다. 그 눈부신 자태는 그대로 한 떨기 목련 꽃을 닮아 있

었다. 그러나 “예쁘니?”하고 물어 보일 때에도 언니의 미간에는 불안과 수심의 그늘이 어리어 있었다.

“응, 예뻐. 그 기수라는 분 틀림없이 언닐 좋아할 걸.”

호들갑스럽게 말하곤 했지만 나역시도 마음속의 일말의 불안은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맛선을 보기 전날이었다.

힘들어서 한 화장을 복복 지워버리더니 언니는 냉소하듯이 불쑥,

“그 남자 다리가 하나 병신이었으면…”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쳐다 보았더니 “아니면…, 머릿일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래도, 아니 차라리 성불구자 같은 거라도 좋겠어…”하며 거침없이 말해 버리더니 키득 키득 웃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언니는 다시 장롱문을 열고 옷가지를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다.

“어떻게 좋아 보이니?”

옷을 몸에 대 보며 물었을 때 나는 그만 열결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언니의 아픈 곳을 무참하게 건드려 버린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말이 내 입을 빠져 나가고 난 다음이었던 것이다 “감색 무늬 있는 부라우스를 입고가 언니한테 잘 어울릴 걸, 날도 더워졌고……”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는 언니의 싸늘해진 얼굴을 올려다 보며 아차, 싶었던 것이다.

언니의 옷 중에서 유일하게 팔뚝이 드러나게 되어있는 감색 부라우스는 입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 × ×

그 일이 있던 것은 정확하게 18년 전이었다.

그러나 어떤 한가지 일이 20년이 다되도록 그 자취가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뚜렷하고 크게 그 상처를 남긴것은 확실히 잔인한 일이었다.

더구나 흉한 문신 처럼 언니의 몸 안에 남아 있는 그 흔적은 사춘기를 지나고 성숙한 여인이 되기 까지 마음에까지도 모진 슬픔을 안겨 주며 함께 자라왔던 것이었다.

아직 우리 집으로 옮겨 오기 전 까지 언니네는 “龍靨”이라는 이름 처럼 아름답고 깊은 시골에 살고 있었

고 언니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로서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 근처의 면사무소에 다니셨는데 생활은 좀 곤궁했던 모양이었다.

게다가 90이 넘어 노망기까지있는 할머니는 자주 엉뚱한 사건을 벌였고 그해 겨울 당신의 방에는 불도 넣어 주지 않아서 냉방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 푸념과 함께 처마에 성냥불을 그었던 것이다.

불은 순식간에 대들보아 씨까래를 싸안으며 번져서 마른 초가 지붕은 금방 불기둥이 되었다고 했다.

마을에 갔던 작은 어머니가 달려들어와 건너방에서 까무라칠듯 울어 대는 여덟살난 언니를 껴안고 나왔을 때 방문턱을 기어 올라서 어느새 불길은 작은 어머니의 치마폭까지 날름 날름 타고르고 있었다 한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일찍 불길은 잡았지만 시커멓게 타다남은 집은 귀신이 사는 데 같기만 하더라고 지금도 얘기 하시곤 한다.

병원이 멀어 그날밤을 외가에서 뜯눈으로 새며 피부가 타들어 가는듯 울어대는 언니를 달래며 작은 어머니가 쏟았다는 눈물은 또 얼마였을까.

멀리서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계곡을 활아 내려가는 바람 소리 마저 매섭기만한 그해 동짓달과 셋달을 언니네는 우리집에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 지내며 아무리 담요를 끌어 올려도 몸과 마음으로 파고 들었을 그 냉기를 고스란히 당해냈던 것이다.

언니의 여고 시절 적의 별명은 씹쓰름하게도 “우수의 女人”이었다. 왼쪽 어깨로 부터서 뒷 팔꿈치까지 긴 뱀이 칭칭 감고 있는듯 징그럽고 흉하게 주름이 진 화상을 감추느라 한여름에도 혼자서만 긴 팔의 교복을 입고 말 없이 다닌데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던 것이다.

지방의 초급 대학을 다니면서 언니는 몇번 미팅도 하고 단연 인기를 끌었지만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한번도 연애를 해 본 경험은 없었다. 늘 언니 쪽에서 먼저 몸을 사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만하면 오히려 돌아와 문을 닫고 어둡신한 자기의 방에 틀어 박혀버린 때문이었다.

가장 밝고 구김 없이 꿈과 낭만에 부풀어 올라야 할 시절을 언니는 이 처럼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속에서 숨죽여 살아냈던 것이다.

그렇게도 기대를 하였지만 언니의 맞선은 역시 깨어

지고 말았다. 신랑될 사람도 언니를 흠족해하고 더 할 수 없이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였었다 하는데 문제는 언니쪽에 있었다.

차집에서 마주 앉았을 때 언니는 그만 설탕을 줄줄이 흘리고 말았다 한다.

알른 알른 비치는 옷 사이로 드러날지도 모를 그 흉터에 언니는 진땀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나친 긴장 때문일 것이라고 권사님네 쪽에서는 오히려 순진한 처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커피를 들어 올리면서는 숯제 덜덜 떨더니 마치내 바닥에 찻잔을 떨어뜨리는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생각되었던지 그쪽에서는 그제서야 찬찬히 언니를 다시 뜯어보며 의심하는 눈치더라는 것이었다. 언니는 더욱 당황할 수 밖에.

그리하여 “커피잔하나 들지 못할 만큼 어딘가 몸이 몹시 불편한 곳이 있는 모양”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아픈 곳이 어디냐고,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고 몇번씩이나 물어 왔을 때 언니는 참지 못하고 다방을 뛰쳐 나와 버렸다는 것이었다.

정자야, 난 그냥 꽃이나 가꾸면서 혼자 살란다.

언니는 가끔 그런 말을 한다. 속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만 고르고 이제는 그만 시집을 가라곤 타일터 오곤 하지만 언니는 그때마다 그저 조용히 웃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미 가슴 속에 무서운 체념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이의 다른 처녀들과는 달리 언니는 바느질 솜씨가 아주 좋았다. 언젠가 밖에서 돌아 오니 언니는 푸새한 옥양목 이불 훗칭을 꾸미고 있었다.

옥양목의 그 눈부시게 고운 색깔은 그러나 그대로 언니의 슬픔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서 나는

그렇게 자꾸만 스스로를 처연하게 만들어 가는 언니에게 화가나서 일감을 모두 밀어 제쳐 놓고 막 태들다가 함께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니, 나 보고…” 언니는 가끔 한숨 처럼 그런 말을 한다.

언니의 그 말 만큼 나는 가슴 아프게 단드는 말은 없다.

“어떻게 하긴, 다리 병신도 술집 여자들도 시집 가서 잘살고 몇번씩 이혼한 여자도 다시 시집 가서 보란 듯이 잘만 사는데 왜, 뭐가 어떻다고 유별나게 야단이야!”

그렇게 얘기 했다가도 나는 곧 나쁜 경우에만 언니를 빗대어 이야기한 게 미안해져서 입을 다물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가끔 추운 겨울 밤 밖에서 요란한 경적과 함께 불자동차 달리는 소리라도 들려 오면 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금방 무서움과 불안함으로 얼굴이 굳어져 버리곤 한다. 너무도 놀랐던 어린 날의 기억이 스물스물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그럴 땐 차마 딱한 생각에 고개를 돌려 버리곤한다.

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화재의 현장이라도 목격하게 되면 나는 시뻘건 혀로 넘실거리는 불길 속에서 까물어치게 울어대는 20년 전의 언니의 울음 소리가 들려 오기라도 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곤 한다.

그렇다.

불은 이미 20년전에 한채의 조그마한 초가를 태우다가 꺼지고 말았지만 한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마음 속에서 무서운 상처로 20년이 넘도록 어둡게 남아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것이었다.

소방차인들이 검은 그림자를 날려 버릴 수는 없으리라. *